

<2021년 10월 2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람이 일생 동안 자기 생각대로 최고로 한 차원이 ‘하나님이 한 번 생각하고 행하신 차원’ 만 못 하다.
2.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뜻에 맞춰 살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 되어 살게 된다. 그러기 위해 매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이니라.
3. 깨달아야, 희망으로 자진해서 하고 싶은 것이다.
4. <휴거>는 하나의 상상의 말도 아니었고, 희망의 말도 아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실제 행하신 역사로 ‘신부된 자의 영혼을 거두어 추수하신 역사’ 였다. 육이 약해질 때는 ‘내 영이 진짜 휴거되어 살고 있나?’ 생각할 뿐이다. 육이 문제다. 기도해야, 사실을 더욱 깨닫고 확신하게 된다.
5. <육>은 낮과 밤같이 ‘보였다 안 보였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
6. <기도>는 ‘근본 세계에 가서 확인하는 역사’ 다.
7. <육>도 ‘영의 생각’ 이 중심이 되어 살면, ‘영적인 육신’ 이 된다.
8. <영에 속한 육신>이 되려면, ‘말씀’ 에 매여 성령과 일체 되어

살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와 ‘감사’다.

9. <육>이 ‘영을 중심’해서 따라가는 자들은 정상적으로 ‘영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다.
10. 육이 먹고, 입고 정상적으로 사는 것 외에 <육신의 안일함>, <편안함>, <이성>, <욕심>, <교만>에 빠져 정상을 벗어난 삶들이 ‘육에 속해 지나치게 무례하게 행한 것들’이다.
11. 똑같은 육신이라도 <영적>으로 하면 ‘영에 속한 자’가 된다.
12. <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영에 속한 자’가 되기도 하고, ‘육에 속한 자’가 되기도 한다. 칼을 생활 도구로 쓰느냐, 사람을 해하는데 쓰느냐에 따라 좌우되듯이,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면 ‘영적인 육신’이 되고, 만일 ‘자기 생각과 안일’로 쓰면 ‘육에 속한 자’가 된다.
13. <영>에 속하도록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
14. 소나무를 가지치기해 버리고 남은 것은 ‘영에 속한 것’과 같다. <육에 속한 가지>를 치면, 나머지는 ‘영에 속한 것’이다.
15. 나무는 스스로, 혹은 서로 가지를 자를 수 없다. <나무>는 주인이 잘라 줘야 되듯이, <인생>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사역자들과 천군들과 같이 잘라 주셔야 된다. 고로 ‘육에 속한 가지들’을 자르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

섭리사뿐 아니라 기성과 민족과 세계에도 ‘육성을 자르는 역사’를 결단코 행하신다.

16. <자기 육성의 행위>로 형제들을 괴롭게 하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육성 가지치기’를 행하셨다. 이는 전체 모두에게 해당된다. 자기 육성으로 형제들을 괴롭게 하는 고로 ‘생명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행해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이미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정녕코 행하신다고 하셨다.

17. <만물>도, <자기>도, <사람들>도 ‘영원한 세계’를 위해 썬라. 그리하면 그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겠느냐.

18. <귀한 한 도(道)>는 ‘육신 일생 썬야 하는 가치가 있는 진리’다. 매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썬야 된다.

19. <귀한 진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받았든지,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든지, 사랑하여 선물로 받았든지 정말 귀하게 여겨라.

20. <진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선물’이다. 보물만이 보물이 아니다. <자기를 구원시키고 복되게 하는 귀한 진리>가 ‘일생 동안 귀하게 여길 만한 보물’이다. <도(道)>는 정말 귀한 것이다.

21.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감동 주어 깨닫게 하신 진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으니, 1조 10조 100조 1000조의 돈

에 비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 육신 일생 누리고 기뻐하며 살게 해 주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게 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귀한 보물’이다.

22. <왕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사랑이 충만하게 살지 못하면 ‘왕궁에 사는 보람’이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왕궁, 지구 세상>에 살아도 영도 육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기쁨도 사랑도 없이 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좋은 세상에 사는 보람’이 없다.

2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영원한 말씀>을 듣고 사는 자는 지금 그 영이 천국의 길을 가면서 ‘영원한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 사는 자다.

24.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 전해주는 <주>는 ‘귀한 자’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지구 세상 최고의 인간 보물’이다. 그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시대 말씀’이 전달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신다.

25.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모두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써라. 그러면 최고로 가치 있게 쓰는 자요, 지혜롭고 현명하고 명철한 자니라.

26. <모든 시간>도 육으로도 영으로도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해 써라.

27. <영원한 세계를 가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지구 세상의 귀한 보석’ 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가치가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28.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해당되는 <귀한 한 도(道)의 말씀>은 일생 동안 하나를 깨닫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다. 그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에게 주어 전하게 하시 고, 그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시키신다.
29. <기도>해야, ‘귀한 말씀’ 을 들어도 귀하게 깨닫게 되고, 실천 까지 하게 된다.
30.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생활의 말씀’ 이 있고 ‘영원한 말씀’ 이 있다. <영원한 말씀>은 ‘영원한 황금천국 으로 가는 길’ 이다. 그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자만이 귀하게 알고 매일 쓰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최고로 귀한 삶을 산다.
31. <귀한 말씀>은 ‘자기를 좇는 자’ 에게만 준다.
32. <주>는 ‘모든 일의 주’ 이시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육을 쓰고 선악을 보시고, 공의롭게 심판하며 행하신다.
33. <만물>도, <사람>도 모두 ‘영원한 세계’ 를 가기 위해 만들었 으니, ‘영원한 세계’ 를 위해 최고로 가치 있게 써라. 그리하

면, 네가 잘 되고 형통하리라.

34. <창조주 삼위의 최고의 기쁨>은 ‘사랑’ 이니라.

35.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36.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인간>을 ‘사랑’ 으로 창조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고 믿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낙’ 을 누리라.

37. <영원하신 사랑의 존재자이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매일 태양같이 귀하게 여기고, 공기같이 귀하게 썬다.

38. <자기 사랑>을 상대가 몰라주면 ‘사람’ 도 변하고, ‘전능자 하나님도 성령님’ 도 ‘주’ 도 변해 버리신다.

39. <사랑>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각각 개성대로다.

40.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창조하셨으니, ‘사랑’ 역시 무한대로 창조하셨다.

41.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영원한 아름다움’ 과 ‘신비함’ 과 ‘웅장함’ 과 ‘품위’ 와 ‘권세’ 를 가지고 있다.

42.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썬야 ‘영원한 가치’ 가 있다.